

문 의	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	과 장 박용주 서기관 이진용	042-481-5063 042-481-8659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특허청, 지식재산권 ‘신남방정책’ 본격 시동

- 브루나이에서 제1차 한-ASEAN 특허청장회의 개최 -

한-ASEAN 특허청장회의 창설과 지재권 협력각서(Memorandum of Cooperation) 체결로 한-ASEAN 지재권 협력이 대폭 강화된다.

3월 27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차 한-ASEAN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특허청장은 ASEAN 10개국에서 참석한 각국 대표단들과 지재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, 지재권 분야에서 한-ASEAN 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협력각서에 서명했다.

지재권 분야에서 ASEAN과 최초로 체결된 이 협력각서에는 양측이 지재권 창출, 보호, 활용 및 상업화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. 청장회담에서 양측은 ASEAN을 위한 지재권 교육과정 개발, 교육프로그램 제공, 지재권 상업화에 관한 한국의 노하우 전수 등 구체적인 협력분야에 대해 합의했으며, 중장기적인 ASEAN의 지재권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「한-ASEAN 발명센터」를 현지에 건립,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.

아울러, 양측은 한-ASEAN 청장회의 등을 비롯한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매년 지재권 분야 업무협력계획을 공동작성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, 지재권 분야의 한-ASEAN 협력이 공식적이고 안정화된 체계 속에서 진행되게 됐다.

성윤모 특허청장은 “ASEAN은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파트너이자, K-브랜드의 인기가 갈수록 확산되는 곳으로 지재권 분야의 협력이 더 없이 필요한 곳”이라고 말하면서, “이번 회담과 협력각서 체결은 한국과 ASEAN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재권 분야의 ‘신남방정책’이 구체화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이진용(☎ 042-481-865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